

사목회의

- 일시: 6월 17일(주일)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유아세례 부모교육

- 교리일정: 6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장소: 미카엘방
- 최종면담: 6월 23일(토) 오후 2시, 6월 24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세례 예정일: 6월 30일(토) 오후 2시

은빛대학 올림픽 및 종강

- 날짜: 6월 21일(목)

김경수 바오로 신부님 영명축일

- 축하식: 6월 24일(주일) 교중 미사 중
*** 6월 29일(금) 영명축일을 맞이하는 김경수 바오로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구역장 / 반장 교육 및 구역장 회의

- 일시: 6월 24일(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 구역장 회의: 오후 2시 30분 부터 미카엘방

성령봉사회 미사

- 일시: 6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초/중고등부 통합미사

- 일시: 6월 30일(토) 오후 4시 미사
*** 오후 5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한글학교 운동회

- 일시: 6월 30일(토) 오전 9시 30분
- 장소: 성당 옆 Hume Park

2018년 초등부 겨울 캠프

- 오리엔테이션: 6월 30일(토) 오후 12시 성당
- 기간: 7월 7일(토) - 9일(월)
- 장소: Long Point Conference Centre
- 대상: 3-6학년
- 참가비: \$110
- 인원: 선착순 100명
- 접수: 토요일 오후 4시 미사 전/후 성당 앞
- 연락처: 캠프장 - 남택원 데이빗 0459 593 434
 교감 - 송민상 프란치스코 0430 003 273

열린마음제

- 주제: 카리타스 (사랑)
- 언제: 7월 20일 (금)
- 시간: 5시 미사 후
- 어디: 순교자 기념관
- 연락처: 0404 456 377 이지현 안젤라 (열린마음제 장)
 0401 584 808 이재준 안드레아 (중고등부 교감)

단체모임

- 6월 17일(주일) 글로리아
- 6월 19일(화) 청소년 분과
- 6월 21일(목) 성령봉사회
- 6월 23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 6월 24일(주일) 카나소공동체
- 6월 25일(월) 교리교사회

제10차 창세기 청년성서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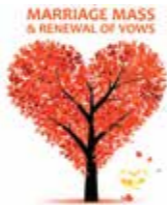
- 주제 : "야훼 이레" (창세 22,14)
- 접수기간 : 6월 9일(토) ~ 6월 24일(주일)
- 인원: 선착순 60명(신청서 작성 후 입금 기준 \$200)
- 연수날짜 : 7월 19일(목) ~ 7월 22일(주일)
- 오리엔테이션 : 7월 7일(토) 청년미사 후
- 문의: 김경훈 미카엘 (0430 721 401)

제11차 마태오 청년성서 연수

- 주제 :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태 16,16)
- 접수기간 : 6월 9일(토) ~ 6월 24일(주일)
- 인원: 선착순 25명(신청서 작성 후 입금 기준 \$200)
- 연수날짜 : 7월 26일(목) ~ 7월 29일(주일)
- 오리엔테이션 : 7월 14일(토) 청년미사 후
- 문의: 양은주 야가다 (0433 998 728)

2018년 혼인 갱신식 (미사)

- 일시: 7월 8일(주일) 10시 30분
- 장소: St Mary's 대성당
- 집전자: Archbishop Anthony Fisher
- 예약 문의: 사무실 또는 LMFevents@sydneycatholic.org
 전화예약: 9307 8404



결혼을 하신분은 누구나 참여할수 있으며 결혼 50, 55, 60 또는 65 주년, 해당자들은 사무실이나 위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신청자는 Anthony Fisher 주교님으로 부터 특별한 증명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톨릭 한인 천주교회 사진 동아리 신청

- 회원자격: 예비신자 및 신자
- 모임장소: 성당 및 시드니 교외
- 모임: 월 출사 1회, 평가회 1회 예정
- 문의: 지충환 스테파노 (0411 456 470)
*** 하느님 영의 아름다운 빛을 카메라의 영상에 담아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6월 24일) 양재봉 다니엘, 한진수 바오로, 이기철 알렉스 Pr. 성모성심, 임순목 야고보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시드니 한인 가톨릭 후보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보좌신부: 김경수 바오로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이경화 필로메나, 김영애 젤마, 남귀이 오메르
사목회장: 이성복 요셉

한국 순교자와 성 스타니슬라오 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사목지표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제 옆에서 든든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일찍 찾지 못한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이곳 시드니에서 지내는 삶이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즐겁게 지내려고 해도 항상 마음속에는 고국 생각, 가족 생각에 그리움만 커지곤 했어요. 한고비 한고비 지날 때 마다, 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지요. 특히나 초보 엄마로서 아이들을 대하는 제 모습조차 점점 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로서 한 집에 아내로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의도치 않게 가족들한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작년 말, 신랑한테 큰일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에 너무 슬펐어요. 주님을 믿고 있는 중에 이런 큰 시련을 주시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싶었는데 주님께 다 털어놓고 기도하니 마음도 편하고, 지금 이 시련을 통해서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시작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굳게 다잡게 되었어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고 아픈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몸 건강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주님,

어느 날, 우연히 성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성당에 다니면서 언제부턴가 저 스스로 무언가 느끼게 되었어요. 나도 변화가 필요하고 나부터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끝없이 밀려왔지요.

주님,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제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도 작지만, 가엾은 어린양 두 손 모아 반성하고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어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 만나는 곳곳마다 주변에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제 옆에 계시어, 일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진: 김옥순 수녀

이슬기 스테파니아

⊕ 전례성가 / 화답송

전례성가: 입당: 32 봉헌: 511, 220 성체: 159, 165 파견: 201

제 1독서: 예제 17,22-24 제 2독서: 2코린 5,6-10 복음: 마르 4,26-34

화답송:



주님 -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 다

주일 봉사	■ 17/6 3구역	■ 24/6, 1/7 5구역	■ 8, 15/7 4구역	■ 22/7 6구역	영양백숙 1구역		
사무실 업무시간 안내	수, 목, 금: 09:00 - 15:00 / 18:30 - 20:30	토: 09:00 - 12:00 / 15: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봉헌금 \$ 2,810.40	교무금 \$20,006.30	기타 \$-	미사 참여수 2,126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 요셉 신부), 8756 3331 (김경수 바오로 신부), 9558 3498 (홍 야고보 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 필로메나 원장수녀, 김 젤마 수녀, 남 오메르 수녀) 연령회 0408 123 173 (남순현 아네스)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 스테파노)

본당 대청소



11일(월) 공휴일에 본당 대청소가 실시되었다.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설분과장을 중심으로 사목위원과 관리장 및 성모성심 뵈레시디움 단원들이 천정 청소부터 그동안 업무를 못 냈던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였다.

6월 가톨릭 골프 모임



12일(화) 리버풀 골프 코스에서 열린 6월 월례모임에서 1등상, 2등상, 메달리스트 상 등이 수여되었다.

가톨릭 상식 - 예수 성심 성월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비오 11세에 의해서 1873년 부터 시작된 예수 성심 성월은 우리에게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기억하고 이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마음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을 표현할 때 심장을 상징으로 삼아서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또한 심장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 안에서 마음을 넘어서

인간의 중심이자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가장 내밀한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심장은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나는 장소이며 동시에 하느님을 닮은 사랑을 간직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은 그 어떤 인간의 마음보다 하느님을 온전히 계시하는 장소이며 하느님을 보여주는 완전한 통로인 동시에 하느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성심 성월에 이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어 고백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자신을 하느님의 아드님인 예수님의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고는 했습니다. 결국 완전한 사랑에 자신을 봉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에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에 봉헌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예수 성심 성월에 있는 예수 성심 대축일은 사제 성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신 아르스의 본당 사제 비안네가 자주 이야기하셨듯이 "사제직은 예수 성심에 대한 사랑"이기에 사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에 더욱더 일치 될 수 있도록 기도 또한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예수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중에서)

김경수 바오로 신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 마르 14, 12 - 16; 22 - 26

질문

"그를 따라가거라."(13)
▶ 주님의 일(봉사)을 하는데 나에게 안내자가 되어주었거나 내가 누구에게 주님의 일을 하도록 안내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내려라." (15)
▶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22)
▶ 주님의 성체(영성체)가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경험을 나누십시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24)
▶ 주님의 사랑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 체험이 있습니까?
▶ 내가 누군가를 위해 했던 희생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외 성경구절
위 성경구절 외에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 혹은 느낌은 무엇입니까?)

6월 활동토의 (예문)
※ 반 공동체에서 성당봉사활동 참여하기
우리 본당은 주일에 점심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는 구역소공동체에서 주로 봉사를 합니다. 우리구역이 점심식사를 담당할 때는 우리 반 공동체에서 누가 어떤 일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또 주보에 나오는 대로 구역별로 돌아가며 전례, 커피봉사, 교중미사 후 청소를 합니다. 우리 구역이 이를 담당할 때 우리 반에서는 누가 어떤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6월 8일(금) 4 구역 6 반 반모임

Catholic Weekly News

Threat to seal of confession

The Catholic Archbishop of Canberra and Goulburn Christopher Prowse has expressed shock over the passage of a new child protection law which seeks to force priests to break the seal of confession in cases where child abuse is disclosed.

However, the new law does not provide an exemption for disclosures made in the sacrament of confession, a move that has been criticised as an overreach.

The new law comes into effect on 1 July, but the provision relating to the confessional won't apply until 31 March, 2019 to give Church authorities time to discuss with the Government how it will work.

If no solution is found, the ACT will become the country's only jurisdiction where priests can be convicted for maintaining the seal of confession.

"I'm extremely disappointed that [the bill] was augmented to include intervention into the sacrament of confession without any consultation with the archdiocese," Archbishop Prowse said.

"To have the Church's sacramental life intruded upon is quite extraordinary given the democratic country we live in.

"I'm quite in shock about that.

"The way we are moving is towards a fundamental infringement on basic human rights of religious expression and freedom."

"I believe that is it not an 'either-or' situation of ensuring child safety or the integrity of the sacrament.

"It's 'both-and' child safety and the integrity of the sacrament.

"All of us have got to work these areas out together in a respectful tone of mutual dialogue."

The archbishop said he has been in touch with canon lawyers for advice on the issue and would also speak with the Apostolic Nuncio, Pope Francis' representative in Australia.

In an opinion article for The Canberra Times, Archbishop Prowse said the requirement to break the seal of confession would neither help to prevent abuse or efforts to improve the safety of children in Catholic institutions.

Apart from the fact that child abusers do not confess their crimes, such legislation would also threaten Catholic's religious freedom and put it out of step with other jurisdictions, he wrote.

"Sadly, breaking the seal of confession won't prevent abuse and it won't help our ongoing efforts to improve the safety of children in Catholic institutions."

continued next week - Church's counterargument

동서유통 한국 택배 전문 업체
* 호주산 소고기 선물세트·와인
* 경조사용 꽃바구니·화환·케익
9750 2694 / 0425 213 503 dongseoyutong

시드니부동산 Sydney Nationwide Realty
교민제1호 부동산
정현배 (보나 벤투라) 0410 546 506
김진웅 (야고보) 0416 000 534

TOTAL KITCHEN
부엌가구·일반가구·인테리어·주문제작공장 직영!
MOBILE: 0414.654.077 PHONE: 02.9737.9033
E-MAIL ADDRESS: TOTAL.KITCHEN@HOTMAIL.COM
ADDRESS: 67-69 DERBY ST SILVERWATER

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시드니 전지역 판매
크리스토퍼 조항민 0418 206 007 (7days)
사무실: Lidcombe / Seven Hills

체온1도의 신비
다이어트도 빠서나니 + 지방마사지
예약가능시간
월-토 9am-5pm
0452 347 365
02 9157 2121
79/1-55 West Parade West Ryde NSW

김조홍 공인주례 Reg No. A15718
결혼증서 발급 및 등록 결혼식 주례
가가호호 부름산 온전학원
www.gagahohoproperty.com
T. 02 9742 1500 M. 0407 421 500

FITNESS STUDIO
PT MICHAEL (미카엘) 0426 445 365

Miracle Finance
주택용자·재용자·상업건물 용자
고준서 0408 815 816
austarko@hotmail.com

MKL SYDNEY 유학 이민
학교 상담
비자 상담
T. 0420 200 303 MKLSydney

McGrath
James Jin 제임스진
Sales Agent
0404 071 060
jamesjin@mcgrath.com.au

HJB 한진운송
최다차량 보유 8대
0431 24 24 24
대표 허요셉 9648 2424

SHOP/OFFICE 인테리어
HJTOTALFITOUT
0450 723 884 / 02 8678 3884
www.hjtotalfitout.com.au

RUHENS 루헨스
직수 직수 직수
직수형 정수기
https://youtu.be/gcxxPPuQCV8
다이아몬드 거산 정수기
M 0416 1004 99 T 9643 9999

텔스트라 캠퍼스점
215 Beamish St, Campsie
TEL: 02 9784 9888 / 0403 278 022
텔스트라 리드콤점
Level 1, 92 Parramatta Rd, Lidcombe
TEL: 02 9737 0007 / 0403 278 022

JK TRADING
유기농 두유 Bonsoy
유통업체
박유주 0400 535 056

AIR CONDITIONING AND ELECTRICAL
Contractor Licence No. 254766C
JUSTIN COOL
0411 169 320